

순천시,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직원 공개모집

7일까지, 센터장 1명 포함 총 12명 직원 모집

순천시는 지난 3월 (재)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설립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의 직원 공개채용에 나섰다.

시는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유치하면서 승주읍에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해 오는 7월 개소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순천 3대 오아시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발효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식품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직원모집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식과 경협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집규모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재단운영 및 연관산업 발굴, 시장개척, 예산회계, 마케팅 등 전략기획 5명, 제품개발 및 R&D과제 수행, 기술지원 등 연구개발 3명, 제품생산기술 지원 및 생산성 향상, 공정설비 운영관리 등 산업화지원 3명을 모집한다.

응모 희망자는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6월 7일 17시까지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에 의해 6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7월 11일 임용될 예정이다.

직무별 자격요건 등 직원 채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1-749-87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승택 기자

구례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성과 나타나

구례군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 90개 마을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구석구석 쾌적하고 아름답게 거듭나고 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 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발전을 이끌어내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는 사업이다.

지난달 24일에는 90개 마을 중 지자체심사로 선정된 5개 마을(구례읍 봉서, 간전면 안음, 간전면 하천, 마산면 광평, 산동면 삼성)에 전라남도 으뜸마을 평가단의 현장 방문 이미지 평가가 실시됐다.

이번 이미지 평가는 도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위원도 함께 방문해 마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돼 평가를 넘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됐다.

평가 대상지로 선정된 구례읍의 봉서마을은 아생화마을이라는 마

을 특색을 살려 꽃길을 조성하고 마을 주민마다 관리하는 공동화분을 지정해 마을 전체가 하나의 꽃밭 정원처럼 보이도록 경관을 가꾸었다.

한편, 산동면의 삼성마을은 마을 유래와 연관된 벽화를 그리고, 관광객 방문 유치를 위해 특색있는 벽화와 포토존을 조성하고 벽화와 어우러지는 미니 정원을 가꾸었다. 특히 삼성마을에 거주하는 화백의 재능기부로 벽화의 유지관리 및 벽화거리 확장이 잘 이뤄지고 있어 마을주민들의 생활 만족도 고취는 물론 삼성마을을 찾는 방문객들도 늘어나 마을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마산면 광평마을 대표이장은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타 연계사업까지 발굴해 사업 시행 초기에보다 더 높은 마을 발전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협력을 통해 더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심건식 기자

곡성군, 한복 패션쇼 성료

곡성군은 제12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 맞춰 방문객들에게 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선보이고자 한복 패션쇼를 열게 됐다. 이번 패션쇼는 한복 명장인 광주대학교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안명숙 교수의 지휘 아래 '곡성 한복을 입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한복을 현대화하고 재해석해 전통 한복, 장미 한복, 웨딩 한복이라는 3가지 파트로 나눠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선보인 자리였다. 런웨이에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22명이 모델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파트는 조선시대 중기 저고리와 삼국시대 이후의 한복 치마를 응용한 전통 한복 무대였다. 이어진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곡성의 심청과 장미공원을 상징화해 꽃과 자수 등을 활용한 장미무늬 한복을 선보였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 중 하나인 결혼식을 모티프로 전통 혼례복을 현대화한 한복 작품을 볼 수 있는 무대였다.

관객들은 특히 세 번째 파트에서 평소엔 보지 못한 적의, 원삼, 구장복, 대수와 면류관 등 격조 높은 웨딩 한복을 마주하며 그 아름다움에 큰 박수를 보냈다. 웨딩 한복은 광주광역시 충장로 한복거리에서 활동하는 한복 전문가들이 제작한 것으로 특별히 곡성 세계장미축제를 위해 협찬했다. /이일규 기자



광양시보건소는 최근 지역 내 희망 어린이집 14개소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아버지의 구름 사탕' 공연을 호응 속에 진행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흡연예방 인형극 '아버지의 구름 사탕'

광양시보건소는 최근 지역 내 희망 어린이집 14개소 1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흡연예방 인형극 '아버지의 구름 사탕' 공연을 호응 속에 진행했다.

광양시는 유아기부터 흡연의 해로움과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게 해 조기 흡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어린이 흡연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하고 있다.

흡연예방 인형극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친숙한 캐릭터 손 인형을 접목해, 아빠가 가족과의 금연 약속을 지키지 못해 체력 저하로 체육대회 달리기에서 낭패를 보고 금연을 결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들은 금연 퀴즈타임과 신나는 율동시간, 캐릭터 인형과의 기

념 사진촬영 시간을 가졌다.

서영옥 건강증진과장은 "인형극은 아이들이 주인공과 하나 돼 웃고 즐길 수 있고 몰입도가 높아 흡연예방 교육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아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형극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오승택 기자

여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추가접수

여수시가 오는 8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받는다.

추가 접수 물량은 400여 대 가량이며, 잔여 사업비 내에서 차종과 연식별 차등 지원에 따라 지원 대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추가 접수 변경사항으로 법인은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추가지원 포함-이하 동일)까지 지원한다.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지

원받을 수 있다.

또한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등급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내에서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난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여수시 기후생태과로 등기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수는 받지 않는다. /이문석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